

도시! 예술을 품다...

City! Embracing Art

제17차 전국 여성건축사대회를 마치고

17st National Convention of Female Architects



임희선 / (주)도씨에 건축사사무소
by Lim, Hee-sun, KIRA

약력

-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 런던 매트루폴리탄 디폴로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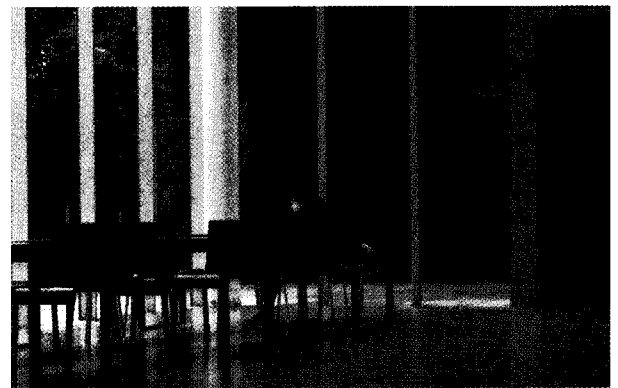
일 년에 한번 전국의 여성건축사들이 모이는 날인 여성건축사 대회, 2011년 5월27일 ~ 28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빛고을 광주에서 열렸다.

여성건축사의 대모님들이 대거 참여해주시며, 나의 어머니보다 나이 많은 분들을 우린 그냥 큰언니라고 부르며 스스럼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신다. 서울의 출발장소인 대한건축사협회 앞에 우는 아이를 달래고 왔다는 분이 헐레벌떡 차에 오르며 드디어 버스는 출발했다.

광주에 다가갈수록 회사에서의 고군분투하던 이야기는 점차 아줌마들의 유쾌한 수다로 바뀌어 가며 또 다른 동지를 하나 얻는 기쁨을 준다. 일 년에 한번 가족에게 공식적으로 허락된 아줌마들의 일탈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의재 미술관

무등산에 도착하여 첫 번째 답사지인 의재 미술관으로 향했다. 한국 근대 남종화 작가인 의재 허백련 선생의 작품 전시관으로 무



의재미술관

등산 등산길을 따라 20여분정도 걸어 천천히 산길을 즐기기 시작할 쯤에 나타난다.

미술관은 지형을 자연스럽게 이용한 긴 슬로프로 자연스럽게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이 갈라진다. 내부 브리지를 통해 지하층과 전시실 층이 자연스럽게 이동되며 모든 공간이 한눈이 들어온다. 동양화와 자연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글라스월과 그에 대비한 미니멀한 느낌을 주는 자재들로 이루어진 벽면들은 수묵화의 여백



의재미술관 단체사진

과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다. 투명한 유리를 통한 외경과 불투명한 유리를 통해 비춰지는 대나무형상은 그 차체가 동양화 같고, 불투명 유리로 만들어진 내부 브리지는 창호지를 스며든 빛과 같이 몽롱한 기분마저 들게 한다. 외부에는 남도임을 느끼게 하는 대나무 조경이 건물과 잘 어우러져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으로 전국에서 온 여성건축사들이 다 모여 이제 버스로 나누어 타고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설현장을 견학하게 되었다. 전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현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관

도청의 지하에 건설되는 건물은 국제현상에 당선된 우규승 건축가의 작품이다. 벌써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젊은이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바로 그 장소였다.

갑자기 흠뻑리는 이슬비는 아직도 30년 전의 슬픔을 말하는 듯 웬지 숙연해지는 장소에 우리를 내려줬다. 처음 온 장소이지만 낯익은 사진에서 본 듯한 도시 모습이었다. 그동안 광주는 발전되지 않은 것인가 의아해 했지만 이 장소는 그대로 있어줘서 고마운 것 같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도시에서 우리는 정말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형상을 가진 것만이 랜드마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있는 장소가 광주의 랜드마크이고 광주의 이야기이다.

아픔의 도시 광주에서 광주는 아시아의 중심도시, 예술의 도시, 빛고을 광주로 변화를 시작하고 있다. 역사를 기억하고 소중이 생각하는 광주시민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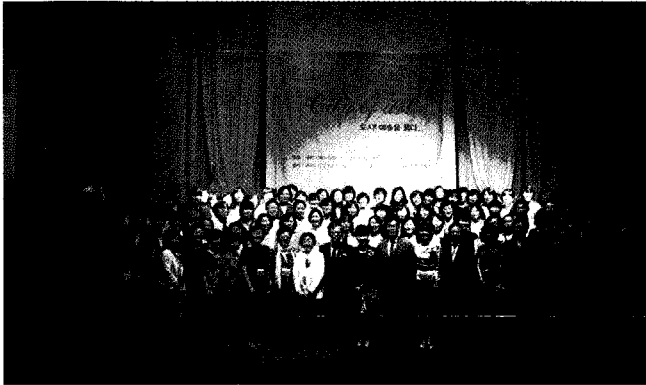
지하의 대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건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건축가의 디자인과 엔지니어와의 긴밀한 협조가 24미터나 되는 긴 보에서 드러나 보였다. 아직 공사 진행 초반부여서 전체적인 공간의 모습은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완공되기를 기대한다.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

비가 흠뻑려서 그런지 날이 일찍 저물어 가고 있었다. 우리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 맞은편의 홀리데이인 호텔의 여장을 풀었다. 하루 동안 정말 먼 길을 달린 기분이다. 호텔의 입면은 다양한 크기의 창과 자유로운 형태와 선으로 일변적인 호텔의 외관과는 차별화 되어 있었다. 신도시 개발지역이라 아직 주변의 환경이 다 갖추어 지어지지 않아서 인지 건물의 독특한 외형은 창에서 나오는 조명과 함께 이색적인 광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 했다.



개회식



대한여성건축사회 총회 단체사진



뽕뽕라 초대공연

1부 만찬에서는 강운태 광주광역시 시장을 비롯하여 박주선, 이용섭, 광정숙 지역 국회의원과 강성익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등 여러 내빈이 참석해주신 가운데 개회식이 시작되었다. 매년 많은 돈은 아니지만 각 지역의 기관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광주 청소년 서포터즈를 후원하게 되었다.

2부의 총회에서는 고은영건축사가 신임회장이 되었으며, 각 지역들의 회원들의 건의 사항과 회의에서는 더 많은 회원이 참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 임원개선 방식, 신입회원들의 소개로 마무리 되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

일찍 아침식사를 마치고 길 건너편의 김대중 컨벤션센터를 둘러 보았다. 오전이라 그런지 아직 한가로운 풍경이었다. 광주를 이야기 할 때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다.

광주민주화항쟁부터 컨벤션센터까지 광주의 상징인 것 같다. 컨벤션 공간과 출입부는 커다란 주황색 라운드 구조물이 아트리움 구조체인 도입부와 만나있다.

소쇄원

호텔을 나와 다시 버스에 올라 오늘의 마지막 견학지인 담양으로 향하였다. 어느새 5월이 되어 길가의 나무는 연초록에서 초록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담양의 소쇄원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민간정원으로 건축사들의 답사 1순위 장소임에 틀림이 없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의 녹음 속에 이곳을 방문할 수 있어서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에 기분 좋게 대나무 숲을 올라갔다. 오랜만에 대청에 앉아서 바람소리 들으며 한가한 오후의 일상을 즐길 수 있었다. 다음에는 좀 더 한가한 시간에 책 한권 들고 와서 읽고 가야 할 것 같다. 일정상 아쉬움을 뒤로하고 담양 창평 슬로우시티로 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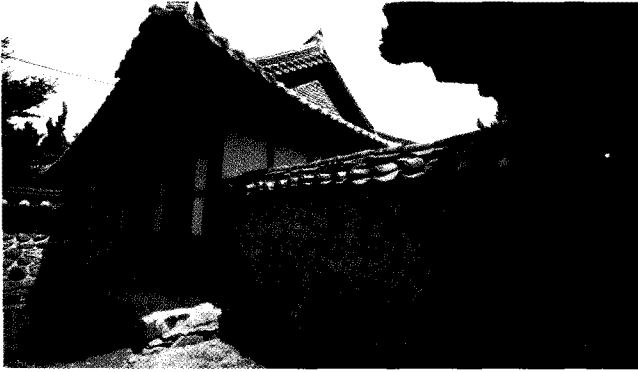
소쇄원 대나무숲



오곡문



제월당



〈고재선 고가〉



〈돌담길에서〉



〈슬로우시티 홍보관〉



〈창평문화의집〉

담양 창평 슬로우시티

슬로우시티란 “불편함이 아닌 자연에 대한 인간의 기다림”을 주제로 하며, 급하고 빠르게 사는 것보다 천천히 살고, 자연과 인간의 삶을 조화롭게 지속가능한 지구를 추구하면서,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닌 내 이웃과 더불어 사회 전체의 건강과 행복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창평 슬로우시티는 슬로우시티 국제연맹의 실사를 거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정된 곳 중 하나이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펼쳐지는 운치 있는 돌담길과 산으로 둘러싸인 나지막한 마을 풍경이 마음을 느긋하게 만들었다. 커다란 나무가 있는 문화의 집 마당에 모여 마을의 역사와 슬로우시티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해설자를 따라 마을탐방에 나섰다. 꼬불꼬불하고 한적한 돌담길을 걸어가며 마을을 구경한 뒤 고재선 고가에 들러 옛날이야기를 들으며 예스러움을 맘껏 느끼고 감탄하였다.

동네 길을 둘러 나오는 길에 다른 고택들과 한옥체험 펜션 등을 방문하려 하였으나 대부분 닫혀있어서 제대로 다 볼 수 없어서 아쉬웠다. 항상 바쁘기만 하던 우리에게 슬로우시티 체험은 일상의 여유와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을 기억하며

이번 대회 주제인 “도시! 예술을 품다...”였다. 광주는 깨어나고 있었다. 이제는 아픔을 딛고 이를 예술로 승화하고 있었다. 시민들은 도시의 역사를 사랑하고 예술을 사랑하며 이제는 세계로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너무 거창한 이야기로 들릴수 있겠지만, 다양한 광주의 예술 및 건축 컨텐츠들이 부러웠다. 예술 행사인 광주 비엔날레와 건축과 도시의 만남인 광주 어반폴리 프로젝트는 건축사나 예술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리고 시민이 만들어가는 도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구심점이 되어줄 것 같다.

1박 2일의 일정은 이렇게 끝나고 아쉬움을 뒤로하며 우리는 다음 행사지인 서울에서 내년에 만날 것을 약속하며 이제 일탈에서 일상으로 돌아왔다. 